

초량 이바구길의 공공디자인에 나타난 장소정체성 표현특성

Characteristics of Expression of Place Identity Shown in the Public Design of Choryang Ibagu-gil

Author 여 미 Yeo, Mi / 정희원, 경성대학교 일반대학원 디지털디자인학과 박사과정
이창노 Lee, Chang No / 정희원, 경성대학교 디자인학부 인테리어디자인학전공 부교수, 공학박사
최강림 Choi, Kang Rim / 정희원, 경성대학교 디자인학부 인테리어디자인학전공 조교수, 공학박사*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expression of place identity shown in public design of Choryang Ibagugil in Dong-gu, Busan and analyze them from physical aspects and from psychological ones. Choryang Ibagugil has special historicity indicating that it is a hillside road(Sanbokdoro) dwelling site created after the 6.25 Korean War and the quintessence of Busan. In addition, the site is a good example that used the topographic characteristics as they were and used the road for movement called as 'gil' to design public environment. Ibagugil connected to Sanbokdoro (i.e. Mangyang-ro) starting from the big road (Busan Station) where there was a large floating population represented the regional identity to public design by the medium of 'gil.'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expression of place identity based on the current status discovered, our conclusions could be drawn as follows: First, place forms identity unde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re is a story on the lives of people in the contexts between place and identity. Second, place identity is an independent speciality of a certain place and expression of place identity into public design makes the place more place-like. Ibagugil expressed its identity while adapting to the topographic characteristics of hillside road(Sanbokdoro). Third, adjacent public buildings were included into Ibagugil, thus highlighting the placeness, although it is considered that it is ambiguous to determine it as public design in the current-status analysis. Fourth, from the public value aspect, slumized hillside road(Sanbokdoro) was improved, which led to improvement in quality of environment and improvement in pride of local residents. Resultingly, it can be said that the place identity appeared in the public design of Choryang Ibagugil were the stories that happened in this place. Moreover, the indication of future image of how the place will be developed in the future makes the value of the place more significant. Therefore, in public design for expressing place identity, utilization of independent speciality of the site is considered to be an important factor. By doing so, 'place becomes a real place' and 'place can get an independent identity.' Going further, it comes to get the characteristics of 'being the place as it is.'

Keywords 초량 이바구길, 산복도로, 공공디자인, 장소정체성, 표현특성
Choryang Ibagu-gil, Sanbokdoro, Public Design, Place Identity, Characteristics of Expressio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보도자료에 의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에 대해 '무분별한 재개발 구역지정은 원주민 퇴출을 가속화 한다.'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¹⁾ 이는 재개발이라는 무분별한 구역지정

의 부작용을 말해주는 대표적 문구로써 원주민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생각해 볼 때, 현 시대의 도시는 건축물 노후화 및 기반시설 낙후로 환경이 슬럼화 되었을 때 재개발이 아닌 '재생'이라는 관점에서 그 지역을 바라본다. 그리고 슬럼화된 지역에 정체성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도시의 기능을 활성화 시켜주기도 한다. 도시의 재생이라는 공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찰권 의견 보도요청', 서울, 2009.6.30. 보도자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분별한 재개발 구역지정 원주민 퇴출을 가속화할 것', 서울, 2009.7.2. 보도자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krchoi@ks.ac.kr

공적 관점에서 볼 때, ‘장소’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정체성을 나타내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장소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서, 또는 ‘길’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본 연구는 공공디자인을 지역의 이야기와 길을 통해 표현하여 장소정체성을 나타낸 부산 동구의 이바구길에 대한 장소정체성 연구이다. 이바구길을 장소정체성의 연구 주제로 선택한 이유는 산복도로를 토대로 형성하여 부산 동구 지역의 옛 자취를 공공환경으로 이끌어냄으로써 장소에 얽힌 이야기를 공공디자인으로 나타낸 부산의 대표적인 길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바구길은 6.25 한국전쟁을 토대로 형성된 산복도로 주거지라는 특수한 역사성과 부산다움이 있기 때문에 장소로서의 공공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 동구 초량 지역의 장소정체성 즉, 동구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삶, 흔적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바구길을 통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나타내었는지 표현 특성을 살펴보고, 또 이러한 장소정체성의 현황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산 동구 지역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가 되며, 슬럼화된 지역에 공공디자인을 통한 장소정체성 표현 방법을 이해하고 나타내는 참고자료로 유용할 것이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초량 이바구길²⁾의 공공디자인에 나타난 장소정체성 연구를 위한 범위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로써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장소정체성의 기존 연구들을 통해 연구내용에 대한 분석방법들을 파악하였다. 또 장소와 인간 그리고 장소정체성에 관한 이론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공공디자인 표현방법에 대해 물리적인 측면과 심리적인 측면으로 구분하고 장소정체성 분석의 틀을 정하였다. 초량 이바구길의 현황과악 범위는 부산 동구에서 정해놓은 부산역에서 망양로까지의 지도코스를 적용하여 현황 파악하였다. 현황과악의 내용으로는 이바구길 각 코스별로 살펴보았다. 장소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공공디자인의 내용은 무엇인지 각각 파악하였다. 현황과악을 토대로 한 장소정체성 분석으로써 물리적인 것은 보존재생적, 지리지형적, 도시자연경관적으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였고, 심리적인 것은 역사전통적, 사회문화적, 장소체험적으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 이러한 공공디자인을 통해 나타난 장소정체성의 가치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았다. 결론에서는 초량이바구길의 공공디자인에 나타난 장소정체성에 대해 함축하여 정리하고 시사점과 중요한 요인을 기술하였다.

2) ‘이바구’는 경상도 지역에서 쓰이는 ‘이야기’의 방언임. 부산 동구 ‘이바구길’ 명칭은 부산 동구에서 명명한 것임(문화체육과). 이바구길은 초량동 산복도로에 얽힌 근현대사 이야기의 복원 취지로 조성, 초량동 부산역에서 망양로까지 1.5km 정도 골목길을 이바구길로 지정, ‘이바구길’을 특허청 상표등록(부산일보 2014.4.24., 13면)

2. 이론적 고찰

2.1. 공공디자인과 장소정체성

공공디자인은 개인이라는 개념을 벗어나 사회적 성격이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사회적 기능 수행과 더불어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가치 효과를 필요로 하며,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도구로서의 효용성을 의미한다.

공공디자인은 도시에서 한 지역사회의 가치를 평가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공공디자인은 장소에 대한 정체성을 토대로 구성하기도 한다. 장소에 대한 정체성을 공공디자인으로 구성하여 나타낸다는 것은 도시가 그 도시다움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의미이거나 지역이 그 지역다움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 도시다움 및 지역다움의 공공디자인이란 그 도시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또는 인문적인, 즉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인 독자성을 표출해 내는 것이다. 이것은 곧 ‘장소정체성’이라는 의미로 적용된다.

장소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공공디자인은 선행되어진 연구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최강림(2011)³⁾은 공공디자인을 통한 주거지 도시재생의 접근방향과 방법으로써 마을의 정체성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Nasanjargal Tumentsetseg(2013)⁴⁾은 정체성을 도시의 관점에서 볼 때 정체성의 특징을 ‘동일성과 차별성’, ‘연속성과 단일성’이라 그 의미를 설명하고, 동일성 측면에서는 ‘도시는 그 도시답다’로 정체성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전미화·이찬(2011)⁵⁾은 정체성이란 다른 것과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다른 것과 구분되는 무엇’이라고 정의한 후, 서울, 뉴욕, 미나토미라이 21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사례를 토대로 가이드라인 기본방향을 검토했고 가이드라인의 구성 및 위계, 그리고 장소성을 분석하였다. 한성미·임승빈·엄봉훈(2009)은 서래마을을 대상으로 장소성 형성 요인과 장소정체성을 연구하였는데, 인간의 실용적 국면, 개인의 지각적 국면, 문화집단 구성원의 실존적 국면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그 장소만의 독특함을 분석하였다. 김현석 외(2012)는 제정된 서울색이 서울시 도시 정체성 구축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는데, 역사성, 시민과의 소통, 지역성을 기준으로 사례 분석하였다. 박경운(2014)은 장소에 대한 애착, 장소에 특별한 의미와 정체성 부여를 통해 장소애착을 형성시키는 요인을 탐구하고, 장소애착의 형성요인을 장소정체성과 장소의

3) 최강림, 공공디자인을 통한 주거지 도시재생 사례연구,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97호, 2011

4) Nasanjargal Tumentsetseg, 울란바타르시의 공공디자인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통대 석사논문, 2013.12, p.4

5) 전미화·이찬, 공공공간의 장소정체성을 위한 디자인가이드라인방안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0권 4호, 통권87호, 2011, p.146

존성, 장소착근성으로 구분지어 설명하였으며, 장소애착에 인지적 환유와 추상적 환유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문현영·윤재은(2013)은 광화문 광장을 토대로 장소정체성을 구현하였는데, 물리적 요소, 행태적 요소, 의미적 요소로 나누어 분석하고, 의미적 요소가 공간의 장소정체성이 된다고 하였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살펴본 선행 연구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공공디자인 관련 장소정체성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제목	연구 내용	분석방법
최강림 (2011)	공공 디자인을 통한 주거지 도시재생 사례 연구	공공디자인을 통한 주거지 도시재생의 접근방향과 방법으로써 마을의 정체성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 것을 제시	• 공공공간, 공공매체, 공공시설물로 나누어 분석 영역별 '대상' 분석
Nasanjargal Tumunts etseg (2013)	울란바타르시의 공공디자인 정체성에 대한 연구	도시의 이미지와 정체성에 대하여 공공디자인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함.	• 울란바타르의 공공공간과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현황분석 • 도시정체성을 반영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분석 공공시설물 현황에 대한 '대상' 분석
전미화 이찬 (2011)	공공공간의 장소정체성을 위한 디자인가이드라인 방안 연구	정체성이란 다른 것과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다른 것과 구분되는 무엇'이라고 정의	• 서울, 뉴욕, 미나토미라이 21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사례를 토대로 가이드라인 기본방향을 검토했고 가이드라인의 구성 및 관계, 그리고 장소성을 분석 장소, 장소이미지, 정체성 형성의 '측면적' 접근
한성미 임승빈 임봉훈 (2009)	서래마을의 장소정체성에 대한 연구	서래마을을 대상으로 장소성 형성 요인과 장소정체성을 연구	• 인간의 실용적 국면, 개인의 지각적 국면, 문화적 단 구성원의 실존적 국면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그 장소만의 독특함을 분석 현상에 대한 '대상' 분석
김현석 외 4인 (2012)	서울색과 도시 정체성에 관한 연구	제정된 서울색이 서울시 도시 정체성 구축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안	• 역사성, 시민과의 소통, 지역성을 기준으로 사례 분석 • 서울색이 도시 정체성에 기여하는지 인식 조사 색채관련 사업현황 등을 중심으로 분석 역사성, 소통, 지역성 기준의 '측면' 분석
박경윤 (2014)	장소애착 형성요인의 환유적 응용에 관한 연구	장소에 대한 애착, 장소에 특별한 의미와 정체성 부여를 통해 장소애착을 형성시키는 요인 탐구	• 장소애착의 형성요인 분석: 장소정체성, 장소의 존성, 장소착근성 등 • 장소애착에 환유 개념 적용하여 분석: 인지적 환유와 추상적 환유 적용 기호학적 '측면' 분석
문현영 윤재은 (2013)	광화문 광장의 장소정체성에 관한 연구	광화문 광장을 토대로 장소정체성을 구현함.	• 물리적 요소(보행로, 가로형태, 가로시설물), 행태적 요소(필수적 행동, 선택적 행동, 사회적 행동), 의미적 요소(상징적 요소, 역사적 요소)로 나누어 분석, 의미적 요소가 바로 공간의 장소정체성이 된다고 함. 물리적으로 행태적 요소의 의미적 요소의 '대상' 분석

2.2. 장소와 인간 그리고 장소정체성

장소는 사전적 의미로 어떠한 일이나 사건이 이루어지거나 발생한 곳이라 정의하며, 다른 장소와 구분되는 지리적 위치나 공간을 의미한다. 장소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공간으로써 시대와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그 의미도 변화하게 된다.⁶⁾ 또 장소에 대한

6) 인터넷 백과사전, <http://100.daum.net>

인식은 인식 주체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 다르게 인식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개개인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장소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그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장소정체성(place identity)의 의미는 '특정 장소를 사용하는데 있어 물리적인 시설물이나 배치형태에 대한 기억, 인식, 해석, 생각 등의 총체'를⁷⁾ 말하며, 한 장소가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것으로써 특별한 모습 또는 성격에서 발생하는 독특함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⁸⁾

장소에 대해 느끼는 정체성은 그 장소에 대한 외부적 요인이 되는 물리적인 것과 그 장소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주관적 경험에 의한 심리적인 것으로 구분된다고 말할 수 있다.

장소에서 정체성을 찾는다는 것은 '장소'라는 공간과 '인간'과의 맥락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장소가 주는 물리적인 정체성은 인간과의 맥락에서 경험을 회상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석환·황기원(1997)의⁹⁾ 연구에 의하면 정체성은 인간이 어떤 장소에 대해 인식하고 회상할 때 발생한다고 하였다. 전미화·이찬(2011)은¹⁰⁾ 장소에 대한 정체성의 개념은 장소와 장소경험의 주체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장소적 특성이라 했다. 박승규(2013)는¹¹⁾ 그의 연구에서 정체성은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밝히고, '차이와 다름'의 변화하는 정체성과 '동일시와 같음'의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을 설명하였다. 또한 그는 정체성이란 기원을 찾는 것이고, 이야기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라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길'이라는 장소가 주는 의미는 통과해야 할 요소로 사람들은 인지하게 된다. 이 '길'은 물리적 요소로써 거의 변하지 않는 통로적 의미와 더불어 길에 대한 장소경험의 심리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장소가 주는 심리적인 정체성은 특정 장소에 대한 경험이 선험적 인지로 기억되어 하나의 잊히지 않는 요인이 만들어낸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2.3. 장소정체성 분석을 위한 틀

이론적 고찰을 통해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분석 방법을 살펴볼 때, 어떠한 표본을 '대상'이나 '측면'으로 분석한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량야구길의 공공디자인의 현상을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례 대상이 되는 초량 야구길의 공공디자인

7) 산림청, <http://www.forest.go.kr>

8) 최강림, 신도시 개발과정에서의 장소만들기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6, p.19

9) 이석환·황기원, 장소와 장소성의 다의적 개념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제32권 제5호, 통권91호, 1997.10, p.178

10) 전미화·이찬, op. cit., p.146

11) 박승규, 정체성,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노두, 대한지리학회지, 제48권 제3호, 통권 156호, 2013.6, pp.453-465

인 표현 방법을 물리적인 것과 비물리적인 것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비물리적인 것은 물리적인 것처럼 구체적인 형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2.2의 내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심리적인 것으로 분석용어를 정리한다. 그리고 물리적인 것은 보존재생적, 지리지형적, 도시자연경관적으로 나누어 그 내용을 분석하며, 심리적인 것은 역사전통적, 사회문화적, 장소체험적으로 나누어 공공디자인에 나타난 장소정체성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대상지 현황파악과 연구분석의 틀은 <표 2>와 같다.

<표 2> 현황파악 및 장소정체성 분석의 틀

구분	장소정체성 표현특성의 분석 범위와 방법		
현황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량 이바구길 순서별 사진촬영 • 부산 동구에서 정해 놓은 초량 이바구길 코스에 기준하여 현황 파악(광플랫마다 약간씩 다른 코스가 확인됨. 계속해서 보완해 가는 중으로 파악됨) • 장소정체성 표현을 위한 장소활용형태 파악 • 이바구길 각각의 위치와 지면형태 파악 • 장소적 특성 분석 • 무엇을 디자인 요소로 선택 했는지 파악 • 공공디자인 표현 방법 파악 		
장소정체성 분석	배경	보존재생적	• 옛것을 보존, 재생한 것
		지리지형적	• 지리적인 또는 지형적인 형태를 이용한 것
	출면	도시자연경관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특정 장소 • 도시와 자연 경관에 대해 조망이 가능한 장소
		역사전통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적 전통적에 대한 이야기 • 옛 지역 사람들의 사라져간 문화, 삶과 생활양식이 전 통성을 갖는 것
심미적	사회문화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구 사람들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 • 옛 지역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행동양식을 엿볼 수 있는 것 • 지역민들이 가졌던 신앙 • 지역 사회에서 영향이 있었던 혹은 있는, 관계된 현 상이나 인물에 관한 것 	
		장소체험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현특성이 간접체험이나 직접체험이 가능한 것 • 공공디자인 표현형태가 보여주는 구성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장소 체험이 가능한 것

<표 3> 산복도로 배경

구분	내 용	비고
산중턱 주거지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5 한국전쟁 당시 부산으로 이동한 피란민들의 원도심 집중 현상, 원도심의 골목들과 산비탈까지 판자촌으로 형성된 피란민들의 주거지 증가 •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부산항이 내려다보이는 산중턱에 모여 살기 시작 • 산비탈(중턱)에 자리잡지 못한 피란민들은 사하구 감천동, 영도구 청학동, 부산진구 양정동, 남구 우암동 등에 분산하여 피란민 촌 형성됨. 	부산 동구 자료
부산 산복도로 형성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복도로 개설공사 계획 -1962.09. 동구 수정동 산복도로 개설공사 진행 거리400m -부산 범일동 철도국 앞에서 암남동까지의 거리16km, 폭 20m, 공사비에산 1억1,040만원 -철도 수원지 뒤에서 초량목장 앞까지 길이1220m 공사비650만원 • 산복도로 신설 -철도 수원지 후편에서 초량 목장간 960m -초량초등학교(현 초량초교) 편에서 영주동 수원지 간 580m -아이초등학교(현 아이초교) 앞에서 남부민 간 2320m -영주동 수원지 입구에서 동대신동 간 5040m 등 	부산 일보 1962. 09. 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2.03. 착공, 1964.10.20. 완공(초량입구에서 대청동 간) • 산복도로 공사로 인해 수많은 판잣집을 철거 	부산 동구 자료
초량 산복도로 형성 배경과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중턱에서 내려다 볼 때 파란 옥상 물탱크가 잘 보임. • 계단식 주거 형태, 경사진 골목 • 옥상(지붕)주차장과 산복도로 주차장, 산복도로와 지붕 레벨이 비슷한 옥상 주차장 	현황 사진 / 저장 촬영

초량 지역의 이바구길은 산복도로의 낙후된 지역을 재개발이 아닌 재생을 통한 공공환경 개선으로써 지역사회의 가치를 높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바구길의 공공디자인의 구성은 부산 동구의 낙후되고 노후화된 지역을 장소 자산에 의미를 부여하여 그것을 정체성으로 이끌어 내었다는데 의의가 크다. 따라서 이바구길의 현황파악을 통해 장소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공공디자인에 나타난 것을 토대로 그 특성을 알고자 한다.

현황파악은 동구청에서 정해놓은 초량 이바구길 코스(부산역에서 망양로14)까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3. 대상지 분석

3.1. 배경 및 현황분석¹²⁾

부산 동구 초량동 일대의 이바구길은 부산 자치구에서 시행한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중 하나에 속한다.¹³⁾ 6.25 한국전쟁 당시 판자촌으로 형성되어 부산광역시 내 낙후지역에 속함과 동시에 대표적인 서민지역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먼저 산복도로의 생성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초량이바구길 지도(http://tour.bsdonggu.go.kr)

1. 부산역
2. 상해문
3. 옛백재병원
4. 남선창고(터)
5. 초량전통시장
6. 담장갤러리
7. 초량초등학교
8. 초량교회
9. 동구인물사당장
10. 이바구정거장
11. 우물터
12. 168계단
13. 김민부전망대
14. 당산
15. 이바구충전소
16. 이바구공작소
17. 장기려기념관
18. 유치환의우체통
19. 까꼬막
20. 까꼬막카페

12) 도보 현장답사, 전시내용 참조, 부산동구청 www.bsdonggu.go.kr, Pamphlet 골목따라 계단따라 동구이바구길, Pamphlet 산복도로 추억사진전시회(부산항 이야기), Pamphlet 장기려박사기념 '더나눔', 초량전통시장 홈페이지 http://www.choryangmarket.com, 초량교회 홈페이지 http://www.choryang.org

13) 이경화, 공유가치창출을 위한 장소 브랜드 이미지화의 특성 연구, 한국기초조형학회 기초조형학연구, 제15권 제5호, 2014.9, p.428

14) 산복도로 망양로(望洋路)는 서구 서대신동3가 458-4 일원에서 부산진구 범천동 1298-114 일원까지로 총 거리 약 10.068Km, 초량 이바구길은 초량동 부산역에서 망양로까지 1.5km정도임.

<표 4> 초량이바구길의 현황분석(부산 동구에서 정해놓은 부산역에서 망양로까지의 코스를 적용하여 현황분석 함)

순서 및 주요명칭	현황	장소적 특성					
		물리적인 측면			심리적인 측면		
		보존 재생적	지리 지형적	도시 자연 경관적	역사 전통적	사회 문화적	장소 체험적
① 부산역 (Busan S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역은 이바구길에 속하지 않으나 이바구길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어 있음. • 부산역을 통해 오는 여행객들을 위해 쉽게 이바구길을 진입할 수 있도록 함. • 부산역 광장 한 칸에 이바구길 자전거 정거장을 조성해 놓음. 자전거를 타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길이 협하므로 이바구길 전체를 돌지는 못함.) • 이바구길에 관한 팸플릿이 비치됨. • '이야기를 찾아 달리는 이바구 자전거 정류소'라는 이름으로 설치됨. • 초량 이바구길의 시작점이 됨. • 도시의 거점시설물을 이용하고 대중교통의 광장을 활용하여 장소를 부각시킴.(거점시설물로서 부산역이 초량에 위치해 있음) • 이바구길 자전거정거장을 광장에 설치하고 자전거를 부각시켜 이바구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시각화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적 측면에서 살펴본 이바구길의 시작점인 부산역 광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역 광장을 활용하여 사람들을 유입하려는 의도적 표현이라 판단됨. • 유동인구가 많은 역 광장을 통해 이바구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알리고자 한 것으로 판단됨. 		
		위치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번길				
		지대	평지				
		용도	기차역				
② 상해문 (Shanghai G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역 맞은편에 있는 차이나타운 특구, 부산 동구 초량에 위치하므로 이바구길 코스 포함. • 부산시와 상해시 양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1993.08)후 양국간 우호증진 및 경제·문화·관광분야 등의 교류 증 상해시장과 부산시장간 협의를 의해 상해거리 조성키로 합의(1998.11) • 부산시와 상해시가 공동으로 상해문 건립 • 2004년부터 매년 10월에 상해거리 축제 개최 • 2007년 7월 24일 차이나타운 특구로 지정받음. • 한중 양국의 역사와 문화 교류의 장 및 중국음식 체험의 장으로써 볼거리, 먹거리, 문화공류 등이 있는 중국 분위기의 관광지역 •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특구는 지역민들의 위상 강화 역할 • 도시의 거점시설물을 활용하여 장소를 부각시킴 - 부산역과 가까운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차이나타운 특구 거리를 경험적 장소로 선택 • 타문화의 독특한 특성이 있는 주변 경관을 길에 끌어들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이나타운 특구의 상가거리를 통해 타문화(중국문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장소 체험적 공간 • 문화적 환경의 차이가 있는 공공장소를 이바구길에 포함하여 체험적 요소를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위치	부산 동구 중앙대로 179번길				
		지대	평지				
		용도	차이나타운-상가거리				
③ 옛 백제 병원 (Baek-je Hospit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문화재 제647호. 일제강점기 조적조 건물 • 지하1층 지상4층인 조적조 모더니즘 양식의 건축물 • 1922년 한국인이 건립한 부산 최초 근대식 개인종합병원 • 1942년 태평양 전쟁 시 일본군 장교 숙소로 사용 • 시대상황에 따라 병원, 음식점, 치안대사무소, 중국영사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됨. • 1층과 2층은 옛 건물 구조체에 벽, 문, 계단 등 형태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근대 병원건축의 공간구성을 엿볼 수 있음. • 내부에 산복도로 관련 전시 및 복합 등에 관한 전시회도 개최, 상시 전시공간은 아님.(2014년 8월과 11월 방문시 전시가 있었으나 2015년 5월 방문 때에는 전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시 전시공간은 아닌 듯함) • 옛백제병원 건물을 보존하고 유지하여 장소를 부각시킴. • 철창살, 목재계단, 목재문 등 시대의 흔적이 잘 보존되었고, 시대상황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던 건물을 보존하여 보여줌. • 외부는 옛 건물 그대로의 모습을 장소적 특수성으로 활용하였고, 내부 모습도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활용함. • 백제병원을 거쳐 갔던 수많은 사건(이야기)에 대한 정신적 소산의 결과물들을, 남아있는 건물(장소)을 통해 역사를 경험하며 짐작할 수 있도록 함. • 보존된 건물을 통해 그 시대의 사회 문화를 느끼며, 장소의 체험을 통해 심리적 회상을 일으키게 함. • '불조심', '담배를 버리지 마시다' 등 손글씨 표어를 그대로 보존하여 장소를 경험하고 과거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함. 						
		위치	부산 동구 중앙대로209번길16				
		지대	평지				
		용도	관광, 일반사무실				
④ 남산 창고 (터) Nam-san old sto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에 얽힌 역사적 흔적을 보여주는 부산 최초의 물류창고. 복선창고, 명태보관창고(명태고방) • 현재는 담마트가 위치해 있고, 적벽돌로 쌓은 담장만 옛 흔적으로 남아 있음. 담장은 담마트의 주차장 담장이 됨. • 통목재 기둥을 사이사이 세우고 적벽돌을 쌓아 조성한 담장임. • 건물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옛 창고(터)의 담장 보존을 통해 적벽돌 담장 자체에 정체성을 부각하여 나타내고, 부산 최초의 물류창고라는 역사성에 초점을 두어 장소를 활용함. • 옛 터만 남은 남산창고의 담장을 허물지 않고 보존된 것을 토대로 지역 장소에서 정체성의 흔적을 찾아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고 판단됨. • 남산창고의 옛 흔적(터)인 창고와 남아있는 담장을 통해 그 시대의 사회 문화를 엿볼 수 있도록 심리적 요인으로 활용함. • 담장에 남산창고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시각적 매체로 나타내어 장소를 부각시키고, 방문자들이 하여금 이 장소가 역사가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으로 표현함. 						
		위치	부산 동구 초량로 13번길				
		지대	평지				
		용도	담장				
⑤ 초량 전통 시장 (Choryang Traditional Mark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5년 개설된 상가건물형의 전통재래시장 • 때때로 장보기 체험활동, 다양한 문화 이벤트 등 열림 • 초량전통시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어묵공장인 오명공장이 있음. • 시장 주변 도로나 골목에도 노점상이 즐비함. • 거점시설물 활용 • 전통 재래시장인 점을 활용 • 인접 장소인 전통시장 자체에 의미를 둬. • 한국 최초 오명공장이 있었던 장소임에 의미를 둬. • 과거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시장문화를 경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과거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전통재래시장이므로 사람사는 이야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냄. • 사람들의 삶과 생활상을 현재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통해 지역민들의 사회 문화를 엿볼 수 있게 함. 						
		위치	부산 동구 중앙대로 231번길				
		지대	평지				
		용도	시장				
⑥ 담장 갤러리 (Fence Gall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진 좁은 골목에 설치됨. • 이끼 낀 담장, 부식된 벽에 길을 따라 설치됨. • 동구 산복도로의 삶의 흔적을 알 수 있는 골목길 •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마을의 풍경과 시를 조형적 월을 세워 사진들을 칼라와 흑백으로 전시함. • 좁은 골목의 이끼 낀 담장을 이용하고, 경사로 골목 및 허름한 담장 벽을 이용하여 정체성을 나타냄. • 지리 지형적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여 공공디자인을 표현함-비탈진 길, 구부러진 골목, 산동네 마을에 대한 도시 경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 •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형성된 산복도로 중심의 거주지 골목들을 그대로 이용하여 정체성을 나타냄. • 좁은 골목길, 주거지역의 슬럼화된 담장에 조형적 월을 세워 옛 모습을 정체성으로 드러냄. • 산중턱을 따라 또는 골목길을 따라 형성된 장소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며, 골목, 길, 마을, 산동네에 관한 이야기를 사진을 통해 장소정체성으로 표현함. • 지형적 특성을 그대로 이용한 좁은 골목길을 따라 공공디자인을 설치함으로써 산동네에 대한 시대적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느껴지게 하였으며, 비탈진 길을 걷는 것을 통해 장소에 대한 심리적 작용을 일으키게 한 것으로 판단함. • 사진과 글을 통해 산복도로 삶의 흔적을 엿보게 함으로써 간접 체험적 공간으로 표현함. 						
		위치	부산 동구 초량중로 47번길				
		지대	골목 경사면				
		용도	담장				

* 사진: 저자 촬영, 저자가 2014년 8월 현황파악 시 촬영, 2015년 5월, 6월 확인차 재방문 촬영

⑦ 초량 초등 학교 (Choryang Primary Scho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37. 04. 10. 부산초량공립보통학교로 개교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초등학교 학교 담장에 이바구길 안내도를 부착하여 나타냄. 시각적 매체 표현 유명한 가수 나훈아, 개그맨 및 MC 이경규, 음악감독 박칼린등이 이곳 출신의 졸업생임을 나타냄. 	●	●	●	●
	위치	부산 동구 초량상로 49번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의 거점시설물을 활용하여 장소를 부각시킴. 가시성이 좋은 학교 외부의 담장을 이용하여 정체성 표현 	●	●	●	●
	지대	교문앞-완경사	●	●	●	●	●
	용도	교육시설		●	●	●	●
⑧ 초량 교회 (Choryang Chur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92. 11. 07. 미국 선교사 윌리엄 베어드(William M. Baird)에 의해 설립된 부산 지역의 최초 교회 일제강점기 때 주기철 목사 신사참배 정면 저항, 6.25 전쟁 시 피난민 구호에 앞장 섬, 1951년 4월 29일 이승만 대통령 예배 참석 ● 초량교회는 기독교 유적이이기도 함. 2010년 예배당 대 보수공사로 현재는 리모델링이 된 상태임. 	●	●	●	●
	위치	부산 동구 초량상로 53번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의 거점시설물을 활용하여 장소를 부각시킴. 초량교회 건물은 부산 최초라는 역사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바구길에 장소정체성으로 표현 경사면에 자리하고 있으며 서있는 위치에 따라 주변 도시 경관을 조망할 수 있음. 	●	●	●	●
	지대	경사면	●	●	●	●	●
	용도	종교시설		●	●	●	●
⑨ 동구 인물사 담장 (Dong-gu personage of history w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구 출신 인물을 회고하기 위한 길 - 청마 유치환, 의사 장기려, 독립운동가 장건상, 박재혁, 허정, 여성정치가 박순천, 의사이자 정치가 박기출, 연극연출가 이운택 등 인물 전시. 벽화와 사진 등의 시각적 매체로 나타냄 초량초등학교 한류스타에 관한 이야기 - 초량초등학교 출신 유명인인 가수 나훈아, 개그맨 및 MC 이경규, 음악인 박칼린에 관한 내용 전시 동구 초량에 얽힌 이야기 - 장소에 스며있는 이야기와 더불어 동구 지역의 미래상도 함께 나타내어 지역을 알리는 장소로도 이용함. ● 1876년 부산항의 과거, 1884년 청관거리, 1905년 경부선, 1968년 부산역 신축, 2004년 KTX 개통 등 근대역사를 사진을 통해 이야기로 나타냄. 	●	●	●	●
	위치	부산 동구 초량상로 51번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담장을 활용 - 가시성이 좋은 학교 외부 담장을 개선하여 조형적 요소를 세우거나 그림으로 표현하였고, 설치물을 부착하여 공공디자인으로 표현함. 골목길을 활용 - 비교적 완경사이며, 지역의 긴 골목길을 있는 그대로 활용하여 장소정체성을 나타냄. 	●	●	●	●
	지대	골목 완경사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대 역사 이야기 활용과 동구를 거쳐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활용-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상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시각적 매체로 나타내어 간접 체험적 공간으로 정체성을 표현하였고, 동구를 이끌어 온 사람들의 이야기와 동구 출신 유명인들 이야기를 여러 가지 그림이나 시각적 매체를 통해 이미지로 표현함으로써 장소에 대한 의미를 느끼도록 함. 동구 지역의 과거 이어져 내려온 역사적 이야기 뿐 아닌 동구의 미래상도 더불어 이야기로 표현하여 장소에 대한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함. 동구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 과거 역사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체험적 공간이 되며, 장소에 대한 의미를 느끼도록 공공디자인을 표현. 	●	●	●	●
	용도	담장		●	●	●	●
⑩ 이바구 정거장 (Ibagu S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바구 정거장의 명칭은 부산 동구청에서 명명. 이바구길 거점 시설물로 1층은 휴게실 역할 음료 및 먹거리 판매와 관광안내소 역할 및 동네 주민의 사랑방 역할을 하기 위한 곳 2015년 7월부터 청년들이 관리 운영 예정, 2층과 3층은 문화적인 프로그램 운영 예정 	●	●	●	●
	위치	부산 동구 초량상로37번길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중턱 경사면의 지형적 특성이 반영된 장소, 산복도로인 점을 감안하여 이바구길 관광객을 위한 위치적 휴게쉼터가 됨. 건축물은 신실한 공공시설물이며 산중턱 경사면에 위치함. 	●	●	●	●
	지대	산중턱 경사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복도로라는 장소적 의미를 활용하고 이바구길의 의미를 확장시켜 방문자들로 하여금 산복도로를 체험하는데 구체적 안내와 함께 도움이 되는 장소로 활용 	●	●	●	●
	용도	휴게시설		●	●	●	●
⑪ 우물터 (Old W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물이 있는 장소를 그대로 보존 및 재생 ● 물이 마르지 않고 차 있음. 산중턱에 자리하고 있음. 168계단 아래에 위치함. 과거 산중턱 거주민들이 이 우물을 식수로 이용함. 원래 3개의 우물이 있었으나 현재 1개의 우물만 남아 있음. 	●	●	●	●
	위치	부산 동구 영초길 191번길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초량 지역민들의 옛 공동 우물터임을 부각하고, 옛 우물터 그대로를 보존하여 장소를 부각시킴. 산동네 산중턱에 위치하며, 이끼 낀 담벼락, 주변 나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 우물을 메우거나 덮지 않고 옛 것을 그대로 보존하여 자연적 상태 그대로를 보여줌. 	●	●	●	●
	지대	산중턱 경사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옛 사람들의 생활상의 흔적을 있는 모습 그대로 표현함으로써 그 시대의 사회 문화를 엿볼 수 있도록 함. 장소에 관한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물터의 옛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통해 장소 체험을 직접적으로 가능하게 함. 공동우물을 통해 당시 공동체 생활양식이 느껴지도록 함. 	●	●	●	●
	용도	옛 우물		●	●	●	●
⑫ 168 계단 (168 Stai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형의 급경사 계단으로 168개의 계단 ● 부산항 조망이 가능한 계단길 부산역에서 산복도로로 올라가는 최단거리의 길 노인 및 약자를 위한 65m의 이동편의시설(모노레일)이 설치 예정, 2015년 5월, 6월 현재 공사 중 (맨 좌측사진: 2014. 08. 26. 촬영, 우측사진 2개: 2015. 06. 15. 촬영)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계단 높이별 주거지 대문이 있고 계단 바로 옆이 대문이거나 집 안 거실이 바로 보이기도 함. 	●	●	●	●
	위치	부산 동구 영초길 191번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복도로 지형적 특징으로 나타난 계단 그대로를 이용-산복도로나 비탈길, 허름한 계단길 등 지리 지형적 여건을 그대로 디자인 요소로 반영된 장소 산중턱 급경사면의 계단이며,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부산의 도시와 바다가 잘 조망됨. 급경사 계단길을 따라 계단 바로 옆이 집의 출입구가 되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남. 	●	●	●	●
	지대	산중턱 급경사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6.25 한국전쟁을 토대로 형성된 산동네 산중턱의 계단은 동구의 역사와 사람들의 삶과 흔적을 엿볼 수 있으며, 산동네 사람들의 사회 문화도 직접적으로 체험 가능하게 함. 경사가 심한 계단길은 산복도로의 특징적 모습으로 나타내며, 과거로부터 이어온 시대상의 흐름이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계단을 통해서 표현됨. 	●	●	●	●
	용도	계단길		●	●	●	●

⑬ 김민부 전망대 (KimMinbu View Poi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64년 발표 가곡인 '기타리는 마음'의 작사가 김민부 시인을 기린 공공적 시설물(약 160㎡의 부지)로써 옹벽에는 금속 조형 판넬 설치, 시, 벽화, 조형적 요소의 시각적 매체로 디자인화 하였고, 사진촬영 가능한 포토존 역할과 시 정서를 음미할 수 있도록 문화적 공간으로 조성함. ● 전망대를 통해 부산의 바다와 도시를 보는 것, 포토존에서 사진 촬영 하는 것,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것,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는 것 등 즐길거리를 조성해 놓음. 산복도로 주변에 있는 폐공간을 헐고 공공 시설물을 설치하여 조성된 장소이며, 부산의 도시와 바다 조망이 가능한 위치를 선택하여 만들어진 장소 장소적 여건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으며, 산중턱 옹벽을 활용하여 공공디자인 표현 장소로 활용하였고, 부산의 도시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역할을 하는 장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중턱 전망대와 가파른 옹벽은 산동네 특유의 계단식 장소로 인식되며, 옹벽을 이용한 이미지적 표현, 옹벽의 높이를 통해 산중턱 주거지 현황을 느끼도록 표현하였음. 사회적 인물로 시인 김민부의 시와 업적에 관한 이야기를 시각적 매체로 이미지화하여 공공디자인으로 표현하였고, 산중턱에서 부산의 도시와 바다 조망을 통해 초량 산복도로의 생활상을 느낄 수 있는 장소 체험적 공간으로 나타냄. 	●	●	●	●
	위치	부산 동구 영초윗길26번길14						
	지대	산중턱 경사면						
용도	전망대							
⑭ 당산 (Village Guardi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년 음력 3월과 9월 보름 마을의 풍요와 평안을 기원하는 곳 ● 관리인이 거주하고 있음. 1970년대 새마을운동 시 미개한 문화라 하여 배척당함. 마을 주민들의 덕담의 장소로도 이용 ● 마을화합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함을 중요시 여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교문화의 이야기 활용 - 당산은 미개하다는 종교적 배경이 있지만 허물지 않고 사람들의 문화적 생활로 유지하여 나타냄으로써 초량 지역의 과거 사회문화를 알 수 있게 함. 	●			
	위치	부산 동구 망양로 478번길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접한 시설물을 활용하여 장소를 부각시킴. 과거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장소(터) 이용 종교성 있는 건물을 전통적 모습 그대로 보여줌. 					
	지대	골목 경사면						
용도	무속시설							
⑮ 이바구 충전소 (Story Charging S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험객 숙소, 지역 주민(어르신)이 직접 운영하는 공공시설물. 부산항 조망 이바구길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채워나가는 장소라는 의미를 부여함. 공예 체험 장소 지형적 여건에 순응하여 경사진 모퉁이에 건립한 공공시설물이며, 산복도로라는 장소적 특성이 부각된 장소임. 부산의 도시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장소로써 체험객 숙소로 활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험객 숙소'의 의미로써 '이야기를 채워나가는 장소'라는 뜻을 부여하여 방문객에게도 이야기길의 의미를 느끼도록 함. 또, 산복도로 체험객 숙소에 머물면서 산복도로의 장소를 느끼도록 한 장소 체험적 공간으로 나타냄. 	●			
	위치	부산 동구 영초윗길 25						
	지대	모퉁이 경사면						
용도	체험객숙소							
⑯ 이바구 공작소 (Archive Cen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의 안내원이 있어서 내부 전시물을 설명해 주며, 전쟁 등의 한국역사와 산복도로 이야기를 수집하여 보여주는 공간, 2개월~3개월마다 주제를 바꿔가면서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제공함. 요강, 지계 등 옛 물품을 조형적, 시각적으로 전시 ● 사라져 가는 옛 문화의 사진 전시 앞마당에서는 노인들이 옷놀이, 팽이놀이 등 민속놀이를 하여 여행객들의 이목을 끌기도 함. 역사 문화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부산항의 미래를 살펴 볼 수 있는 생활 자료관으로도 이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복도로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들이 되는 정신적 소산물을 시각적 매체로 나타내거나 물품들의 전시를 통해 옛 흔적을 알 수 있도록 표현함. 옛 물품들 이용하여 사라져가는 옛 사회 문화에 대해 이야기 하고 사진 전시를 통해 옛 생활상을 알 수 있도록 표현함. 	●	●	●	●
	위치	부산동구 망양로486번길14-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중턱 지형적 여건을 그대로 반영한 건축물이나 부산의 바다는 주변 건물에 가려져 보이지 않고, 부산의 도시 조망 가능함. 공공시설물 내부에 전용 전시공간 마련 산복도로 특징인 지붕주차가 있음. 					
	지대	산중턱경사면						
용도	전시공간							
⑰ 장기려 기념관 '더나눔 (Chang keeryo memorial h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시초인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을 동구지역에 설립하고 평생 가난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한 장거리박사의 뜻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 장기려박사에 관한 업적과 일대기를 시각적으로 전시, 다양한 서적 전시 및 동영상 상영 작은도서관, 북카페, 나눔방 등을 구성 설치하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적 인물에 대한 삶의 흔적 이야기를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고, 봉사과 섬김이 많아 사회적으로 의미가 컸던 인물로 의사 장기려 박사의 이야기를 전시매체로 나타내어 산복도로를 체험하는가 동시에 인물 체험도 가능하게 표현함. 	●	●	●	●
	위치	부산 동구 영초윗길 48						
	지대	산복도로 경사면						
용도	기념관							
⑱ 유치환 의 우체통 (Yoo chihwan View poi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마 유치환을 기념한 공공적 시설물이나 2개월~3개월마다 내용이 바뀌면서 전시주제에 변화를 줌. 건물 옥상과 산복도로와의 땅 레벨이 동일함. 산복도로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이용해 부산 북항과 도시를 조망할 수 있도록 전망이 고려됨. 건물 옥상에 우체통을 설치하여 의미를 부여함.(1년 후 수취인에게 편지가 도착하는 느린우체통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곳 장소에서의 삶이 있는 유명 시인의 이야기 활용-교장이자 유명 시인인 청마 유치환의 이야기를 시각적 매체로 나타내어 방문객들에게 장소적 의미를 전달함. 현존하는 예술인들의 작품과 이야기를 수시로 바꿔가며 전시하는가 동시에 부산의 도시조망과 바다조망을 통해 산복도로 풍경을 느끼도록 정체성을 표현함. 	●	●	●	●
	위치	부산 동구 망양로 580번길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중턱 지형적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공공적 시설물 산복도로 레벨과 유치환의 우체통 건물 옥상의 레벨이 동일한 것으로 볼 때, 지리 지형적 형태를 그대로 이용하여 건축함. 산복도로와 레벨이 동일한 지붕을 이용하여 포토존을 설치하였고, 지붕은 부산의 도시조망과 바다조망이 탁월한 전망대 역할을 함. 					
	지대	산복도로 경사면						
용도	전망대, 전시							
⑲ 까꼬막 (Guest Hou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게스트하우스, 까꼬막은 경상도 사투리로서 '산비탈'을 의미, 비탈길에 건립되어 있음. 부산의 도시 조망 가능, 북항 조망 가능, 이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 등의 이야기를 마을 어른들을 통해 들을 수 있고 산복도로를 체험하며 부산 도시 풍경을 조망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공공적 시설물. 비탈길 경사면에 공공시설물로 신설하여 게스트하우스로 이용하고 산복도로 고유의 환경을 활용한 건물 게스트하우스 2층에서 부산 도시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복도로 형태가 비탈길이 많으므로 장소 형태를 그대로 본 따 건물의 이름도 명명함. 건물 이름 자체에도 비탈길이라는 정체성을 접목하여 이바구길 고유의 산복도로 정체성을 느끼도록 표현함. 	●	●	●	●
	위치	부산 동구 망양로 596번길18						
	지대	비탈길 경사면						
용도	게스트하우스							
⑳ 까꼬막 카페 (Caf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 및 옥상에서 부산의 도시 조망 가능 ● 지역 주민이 운영, 차를 마시며 쉬어갈 수 있는 공간 카페의 기능, 산복도로 체험자들을 위해 마련. ● 산중턱에 건립되어 있음. 지하 1층에 테이백 세트와 흑판이 설치되어 담소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복도로 체험 시 카페를 통해 쉬어가는 장소이며, 방문 시 카페운영자가 산복도로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함. 계단식 집들과 옥상 물탱크가 부각되어 조망됨에 따라 산중턱 주거지의 생활상을 직접적으로 체험 가능함. 	●	●	●	●
	위치	부산동구 망양로600번가길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리 지형적 특성에 따라 산중턱에 건립한 공공시설물로서의 카페공간 내부 및 옥상에서 부산의 도시 조망이 가능한 장소이며, 계단식 집들의 옥상 물탱크가 부각되어 조망됨. 					
	지대	산중턱 경사면						
용도	카페							

3.2.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장소정체성 분석

물리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장소정체성의 표현특성은 다음과 같다. 장소를 통한 표현 요소는 지형적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여 공공디자인에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산복도로, 계단길, 골목길, 비탈길, 담장, 옹벽 등 장소 본연의 모습에 순응하여 장소정체성을 드러낸 것이 특성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역을 잇는 거점시설물 활용과 각각의 코스에서 부산의 도시 자연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1) 보존 재생적 - 옛)백제병원 건물의 외부와 내부, 남선창고(터)의 담장, 담장갤러리의 이끼 낀 담장, 우물터, 168계단의 계단길, 김민부전망대의 옹벽은 옛것을 보존하고 재생하는 형식으로 장소정체성을 나타내었다. 우물터의 경우 우물을 배우거나 덮지 않고 옛 것을 보존하여 자연적 상태 그대로 나타낸 것이다.

(2) 지리 지형적-담장갤러리의 좁고 경사진 골목길, 동구인물사담장의 골목길, 168계단의 급경사면, 김민부전망대의 산중턱, 이바구충진소의 경사로 모퉁이, 이바구공작소의 산중턱, 유치환의 우체통의 산복도로면, 까꼬막의 비탈길은 지형적인 형태를 이용하였다. 산복도로나 비탈길, 허름한 계단길 등 지리적, 지형적 여건에 순응하며 디자인 요소로 반영하였고 장소정체성을 나타낸 것이다.

(3) 도시 자연 경관적-지역을 잇는 거점시설물으로써 부산역, 차이나타운특구 상해문, 지역주민들의 삶이 모이는 초량전통시장, 초량초등학교, 초량교회, 지역 안내소 역할의 이바구정거장은 지역에서의 특징 장소이다. 인접해 있는 특정 장소의 경관들을 이바구길의 경관과 조인하여 장소를 더욱 부각시켰다. 담장갤러리나 동구인물사담장과 같이 이 지역의 슬럼화된 담장을 개선하여 조형적 요소를 세우거나 부착하여 디자인화 하고, 좁고 경사면이 있는 상태 본연의 모습대로 디자인화 한 것도 도시의 자연적 경관을 적극 활용한 것이다. 이렇듯 이바구길은 지역 특정의 장소에 대한 정체성을 그대로 표출하고자 한 의도로 보인다. 또 이바구길은 부산의 도시와 부산항을 조망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코스마다 부산의 도시와 바다 조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다른 주체 또는 공적 성격의 시설물을 새로 건립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장소정체성을 표현하였다. 신설된 이바구정거장, 이바구공작소, 장기려기념관, 유치환의 우체통, 까꼬막, 까꼬막카페 등의 공공시설물들은 도시 자연 경관을 고스란히 반영하여 장소의 정체성을 더욱 부각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한다.

3.3.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장소정체성 분석

심리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장소정체성의 표현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현을 위한 요소는 이 곳 사람들의 삶과

생활에 대한 옛 자취와 흔적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일제강점기의 시대적 상황에 따른 이야기, 6.25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산복도로 이야기, 초량이라는 장소에서 일어난 이야기, 독립 운동가들의 이야기, 이 곳 출신의 유명인들의 이야기들이다. 더불어 동구의 미래상을 표현하였다. 동구의 과거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장소정체성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1) 역사 전통적-6.25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형성된 산복도로 주거지 자체는 근현대를 엿볼 수 있는 역사적 사건으로 인식된다. 또 옛)백제병원이나 터만 남은 남선창고의 담장을 허물지 않고 정체성의 흔적으로 나타내었다. 옛)백제병원과 같이 시대상황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 것을 볼 때, 시대적 비극에 대한 의미를 건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초량재래시장과 우물터 그리고 당산을 통해 이 지역의 전통사회를 알 수 있도록 표현했다고 본다. 사라져간 문화이나 남아 있는 흔적들을 통해 이 곳 사람들의 삶, 그리고 공동체 생활상에 대해 심리적 회상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판단한다.

(2) 사회 문화적-이바구길의 공공디자인을 통해 옛 지역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행동양식을 엿볼 수 있다. 상해문을 통해 중국문화를 엿볼 수 있고, 초량전통시장을 통해 초량지역민들의 시장문화의 일부도 알 수 있다. 또한 초량교회의 모습과 설립배경을 통해 부산의 기독교 정착을 알 수 있고, 동구인물사담장의 이야기들을 통해 장소에 대한 시대상의 문화를 엿볼 수 있다. 우물터와 험한 계단길을 통해 산복도로 사회문화를 알 수 있고, 당산과 같은 미개하다는 종교성 배경이 있지만 허물지 않고 사람들의 문화적 생활로 유지하는 것을 통해 옛 지역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행동양식을 엿볼 수 있도록 하였다. 특징적으로 이바구길에 나타난 장소정체성은 현대의 문화도 접목하여 나타냈다는 것이다. 이바구정거장과 까꼬막 카페 등과 같이 현 시대의 카페 문화도 접목하여 나타내었다.

이바구길은 지역사회에서 영향이 있었던 사람들과 관계된 현상이나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장소정체성으로 표현하였다. 옛)백제병원에서 때때로 열리는 전시, 오맹공장 최초라는 이야기가 있는 초량전통시장, 담장갤러리에 소개된 이야기들, 동구인물사담장에서 사회적으로 공이 컸던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와 초량초등학교 출신들이 유명인이 되어있는 이야기, 부산 최초라는 이야기가 있는 초량교회, 의사 장기려박사기념관의 '더나눔'과 같이 봉사와 섬김이 많았던 사람과 경남여교 교장이자 유명 시인인 청마 유치환을 기리는 유치환의 우체통, 시인 김민부를 기리는 김민부전망대 등 공공시설물을 건립하여 이야기로 전시하여 나타내었다. 이러한 수많은 이야기들은 현재의 사람들이 과거에 대해 심리적 체험을 일으키

는 독자적인 사회 문화로써 장소에 스며있는 것들이다.

(3) 장소 체험적 - 이야기 읽기, 사진보기, 험한길 걷기, 산복도로 체험, 공예체험, 체험객 숙소 마련, 부산의 도시 야경보기, 북항의 전망보기 등 이바구길의 장소정체성 표현 특성들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거나 직접적으로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 특징적인 것은 유치환의 우체통에서 시인 유치환을 회상하거나 김민부전망대에서 김민부 시인을 기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산의 도시와 부산항을 조망하면서 산복도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바구길의 공공디자인에 나타난 장소정체성의 표현 특성은 동구 초량이라는 장소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들이 되는 정신적 소산물들을 사진이나 그림, 모형 등의 시각적 매체로 나타낸 것들이 다수이다. 또 자연 그대로 또는 공공시설물을 건립하여 전시 매체로 나타내 시각적으로 이미지화시킨 것이다.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이 곳 장소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종합분석 및 가치

초량 이바구길의 공공디자인에 나타난 장소정체성의 표현특성에 대해 현황과약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부산 동구 초량의 이바구길에 나타난 장소정체성은 초량지역 역사와 사람들의 삶, 흔적으로 남아 있는 물질적, 정신적 소산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길을 따라 나타나고 있다.

이바구길의 공공디자인에 나타난 것들은 인위적으로 구성된 장소정체성의 형식적 정의를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의 물리적, 심리적 요인들을 포괄하여 나타낸 장소존재의 의미표출이라 할 수 있겠다. 옛것을 보존하여 그대로의 것을 보여주는 형식을 취한 것은 장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으로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자연적인 특성 외에 인문적 특성으로는 장소정체성을 공공공간으로 조성하였거나 공공매체라는 시각적 요소를 사용하여 나타내었고, 공공시설물을 설치하여 사람들의 삶의 흔적과 역사성을 이야기와 길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초량이라는 장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체험적 공간으로 표현했다. 이 지역만의 사람, 삶, 역사의 흔적들을 디자인 요소로 채택하여 공공디자인에 반영한 것이다.

부산 초량의 이바구길은 ‘장소정체성’을 토대로 ‘이야기’와 ‘길’이라는 요소를 공공디자인으로 이끌어 내었다. 이를 통해 낙후된 지역의 환경정비 및 마을개선을 동시에 해결하였으므로 도시가치 창출을 돕는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부산 동구 초량의 장소적 문화자원을 활성화하였고 주민편익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했다고도 판

단한다. 도시환경 측면에서 볼 때, ‘장소’를 통한 정체성의 재정립은 그 지역의 문화와 전통성 및 역사성의 보존과 재생을 통해 장소적 정체성이 살아났고, 문화적 가치와 공간적 가치가 증대되었다. 거시적으로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와 ‘길’을 통하여 마을을 알리고, 외부인의 유입을 유도하여 관광적 효과로 공공의 가치를 높였다는 데 의의가 깊다. 또한 이바구길은 공공의 사업 수행이지만 각 개인이 활용하는 사유적 체험공간이라는 것에 의미가 더 깊다.

초량 이바구길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 것은 길을 걸으면서 그 지역 역사와 사람, 삶의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정체성을 나타내었는데, 단순히 역사와 사람, 삶의 이야기 제시에 국한되지 않았다. 장소정체성을 기반으로 공공디자인화 함과 동시에 대상 지역의 미래상과 발전 방향도 함께 보여줬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현재, 미래의 복합적인 장소마케팅 효과를 포괄적으로 추구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초량 이바구길의 공공디자인에 나타난 장소정체성 표현특성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물리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표 5>와 같다.

<표 5> 물리적인 측면의 분석 결과 요약

구분	장소정체성 표현특성		구성요소
물리적인 측면	보존 재생적	• 옛 것을 보존, 재생하는 형식 - 세월의 흔적을 활용, 옛 건물과 옛 터의 적벽돌 담장을 보존, 이끼진 담장, 옛 우물터, 계단길, 비탈진 옹벽을 보존, 재생하여 공공디자인으로 나타냄.	• 계단
	지리지형적	• 지형적인 형태 이용 - 좁은 골목길의 경사면, 산복도로나 비탈길, 산비탈의 특징인 급경사 계단길 등 지리적, 지형적 여건을 그대로 공공디자인 요소로 반영하여 나타냄. • 주거지역의 슬럼화된 지역적 특성을 그대로 공공디자인에 반영하여 장소정체성으로 표현함.	• 골목 • 산복도로 산중턱 • 비탈길
	도시자연경관적	• 지역의 특정 장소 부각 - 지역에서 인지도가 큰 부산역, 차이나타운 특구 상해문 등 거점시설물을 통하여 장소를 부각시킴. • 폐공가를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설하여 의도적 장소정체성 표현 - 산중턱 위치 선택 시 도시 자연 경관을 고려함. • 이바구길에 신설된 공공시설물들은 부산의 도시와 바다 풍경을 조망할 수 있도록 가능한 고려되어 건축됨.	• 폐공가 • 옹벽 • 담장 등
평가종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을 중심으로 물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이바구길 코스에 인접해 있는 거점시설물들을 볼거리로 제공 및 부각하고 주변 환경을 활용하였다는 것은 인위적이며 형식적인 정의를 이루고 있다는 면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비탈진 계단, 구불구불한 골목길, 산복도로 및 산중턱, 비탈길, 옹벽, 이끼진 담장 등은 장소정체성을 적극 표현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산복도로를 토대로 한 ‘길’ 프로젝트는 길 안내 이정표를 명확히 하여 찾기 쉽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함. • 지형적인 여건에 순응하며 건립된 공공시설물이나 산중턱을 이용하여 조성된 것들은 모두 부산의 도시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는데, 이는 도시 자연 경관적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며 사회적 가치 효과가 크다고 판단함. • ‘이바구길’ 도시재생을 통해 부산 동구 초량의 장소적 문화자원 활성화,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 지역의 문화와 전통성 및 역사성의 보존과 재생을 통해 장소적 정체성 부활, 문화적 가치와 공간적 가치가 증대됨. 		

심리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심리적인 측면의 분석 결과 요약

구분	장소정체성 표현특성	구성요소	
심리적인 측면	역사전통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적 전통적 이야기 -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형성된 산복도로 이야기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했던 근현대 사건을 토대로 남아있는 흔적들을 통해 심리적 체험을 일으키도록 정체성 표현 전통성을 갖는 특성 - 사람들의 문화적 생활 흔적이 있는 건물을 전통적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통해 옛 것을 회상 가능하게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제강점기의 시대적 상황에 따른 이야기
	사회문화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옛 지역 사람들의 생활문화 이야기 - 산복도로 사회문화, 시장문화, 타국문화, 옛 흔적의 보존, 재생을 통해 옛 지역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행동양식을 엿볼 수 있도록 표현함. 지역민들이 가졌던 신앙 - 부산 최초라는데 초점을 맞추어 이바구길에 정체성으로 표현, 미개종교도 장소에 얽힌 이야기로 표현 지역사회와 관련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 봉사과 섬김이 많았던 사람 이야기, 시인이야기, 시대적 상황이야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 수많은 이야기들은 현재의 사람들이 과거에 대해 심리적 체험을 일으킬 수 있는 독자적인 사회 문화가 되며, 대상 지역의 장소에 스며있는 사연들을 표현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6.25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산복도로 이야기 초량 지역의 역사, 문화, 사람들의 삶과 생활의 옛 자취와 흔적 이야기
	장소체험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간접적 체험가능 - 자전거 체험, 타문화 체험, 시장체험, 산복도로 체험 그리고 산비탈의 특성을 반영하여 부산의 도시와 바다를 조망하는 가운데 산복도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 공공디자인 표현에 있어서 초량 지역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가 되는 정선적 소산물들을 사진이나 그림, 모형 등의 시각적 매체로 나타냄, 공공 시설물을 건립하여 전시 매체로 나타내어 장소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립운동가 이야기와 이곳 출신의 유명인들의 이야기 등
평가종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점 시설물들에 얽힌 이야기들을 끌어내어 장소정체성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장소를 더욱 부각시키는데 의미를 가짐. 부산 동구 초량 지역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들 즉, 6.25 한국전쟁을 토대로 형성된 산복도로 이야기를 비롯한 초량 지역의 역사, 문화 사람들의 삶과 흔적을 이야기를 통해 정체성으로 표현한 것은 심리적 체험이나 회상을 일으키기에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판단됨. 이바구길은 공공의 사업 수행이지만 각 개인이 활용하는 사유적 체험공간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나 이론적고찰 2장, 2.1.에서와 같이 사회적 기능 수행과 더불어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가치 효과가 필요함. 또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도구로서 직·간접적 체험 장소로써 효용성을 발휘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함. 		

5. 결론

초량 이바구길은 지역의 지형적 특성을 이용하고, '길'이라는 이동공간을 이용하여 공공의 환경을 디자인한 사례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큰길(부산역)에서부터 시작하여 산복도로로 연결되어 있는 이바구길은 '길'이라는 것을 매개로 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공공디자인에 나타내었다. 초량 이바구길의 공공디자인은 인간과 자연환경 사이에서 만들어진 상호작용적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토대로 초량 이바구길에 대한 장소정체성 표현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소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하며, 장소와 정체성의 맥락 사이에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이바구길의 공공디자인에 표현한 장소정체성의 내용은 대상지에서 일어났던 자연적 환경과 인문적 환경에 의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다. 즉 보존재생적, 지리지형적, 도시자연경관적의 물리적인 것과 역사전통적, 사회문화적, 장소체험적의 심리적인 것들로써 '이야기'를 통해 장소정체성으로 나타냈다. 초량 지역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과 사람들의 삶, 흔적들에 관한 이야기, 일제강점기 또는 시대상황에 따라 변화했던 이야기, 6.25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시대적 비극이 만들어낸 산복도로이야기, 이 곳 사람들의 옛 자취와 흔적에 관한 이야기, 이 곳 출신의 유명인들의 이야기 등이 과거 그리고 현재와 미래로 표현되어 있다. 장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정들이 이야기를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였으며, 이는 곧 사회적 가치 및 공공의 가치를 만들어 내었다는데 의미를 표출한다.

둘째, 장소정체성은 그 장소에 대한 독자적인 특수성이며, 장소정체성을 공공디자인으로 표현하는 것은 장소를 더욱 장소답게 하는 것이다. 이바구길은 산복도로의 지형적 특성에 순응하면서 정체성을 표현하였다. 즉, 장소활용의 형태는 이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 특성을 그대로 활용한 것이다. 옛 터, 산복도로, 급경사진 계단, 골목길, 비탈길, 폐공가, 옹벽, 담장 등과 같이 자연적 상태를 그대로 활용하거나 폐공가를 헐고 공공적 시설물을 새로 건립하여 디자인 매체로 활용하였다. 또 지리적, 지형적 특성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부산의 바다와 도시조망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한 고려하였다. 이러한 물리적 측면의 특성 외에 심리적 측면의 특성들도 이 장소에서 일어난 다양한 이야기들이다.

셋째, 현황분석 중 공공디자인으로 판단하기 모호한 것이라 생각되지만 인접한 공적 건물들을 이바구길에 포함하여 장소를 부각시켰다. 부산역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바구길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위하여 광장을 활용한 거점 시설물이다. 상해문, 초량교회, 초량초등학교, 당산도 그 물리적 조건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끌어내어 장소정체성을 표현하였다.

넷째, 공공 가치적 측면의 목적성에서 볼 때, 슬럼화된 산복도로의 길 개선으로 인한 환경의 질 향상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은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디자인적 측면에서는 프로젝트 진행의 결정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의 선호도 및 일부 책임자의 선호도에 따라 디자인이 결정된듯하여 그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있어서 다소 불분명하거나 명확하지 못한 점도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초량 이바구길의 공공디자인에 나타난 장소정체성은 이 곳 장소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이다. 또 이 곳 장소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의 미래상도 포괄하여 나타냈다는 것은 장소의 가치를 더욱 의미 있

게 한다. 그러므로 장소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공공디자인은 대상지의 독자적인 특수성을 활용하여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된다. 그리할 때 ‘장소가 장소답다’,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 장소다움’의 특성이라고 판단한다.

‘길’ 프로젝트를 통한 공공디자인을 할 때, 초량 산복도로와 같은 경우 안전을 위한 부가적 환경을 추가로 고려하거나 지역주민들이 디자인 결정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다면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더욱 의미가 클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험한 산복도로나 비탈길, 구불구불 골목길을 통해 장소를 알리기 위해서는 길 안내 이정표를 명확히 하여 찾기 쉽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추후 과제로 이바구길의 공공디자인이 가져다주는 지역민의 생활 만족도와 경제적 가치효과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김현석·변은영·윤정인·김승렬·이신화, 서울색과 도시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디자인학연구. 제25권 제1호 통권100호, 2012
2. 문현영, 윤계은, 광화문 광장의 장소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기초조형학회, vol.12 no.4, 2011
3. 박경은, 장소애착 형성요인의 환유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기초조형학회, 제15권 제6호, 2014
4. 박승규, 정체성,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노두, 대한지리학회지, 제48권 제3호 통권 156호, 2013
5. 이경화, 공유가치창출을 위한 장소 브랜드 이미지화의 특성 연구, 한국기초조형학회 기초조형학연구, 제15권 제5호, 2014
6. 이석환·황기원, 장소와 장소성의 다의적 개념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설계학회지, 국토설계 제32권 제5호, 통권91호, 1997
7. 전미화·이찬, 공공공간의 장소정체성을 위한 디자인가이드라인 방안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0권 4호, 통권87호, 2011
8. 최강립, 공공디자인을 통한 주거지 도시재생 사례연구, 한국디자인학회, 통권 제97호, 2011
9. 최강립, 신도시 개발과정에서의 장소만들기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6
10. 한성미·임승빈·엄봉훈·서래마을의 장소정체성에 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제37권 4호, 2009
11. Nasanjargal Tumentsetseg, 울란바타르시의 공공디자인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통대 석사논문, 2014
12. 국회도서관, <http://dl.nanet.go.kr>
13. 부산 동구청, www.bsdonggu.go.kr
14. 산림청, <http://www.forest.go.kr>
15. 인터넷 백과사전, <http://100.daum.net>
16. 초량교회, <http://www.choryang.org>
17. 초량전통시장, <http://www.choryangmarket.com>

[논문접수 : 2015. 06. 29]

[1차 심사 : 2015. 07. 15]

[2차 심사 : 2015. 07. 27]

[게재확정 : 2015. 07. 27]